

# “신종풀루 막자” 김장 DIY족 급증

(Do It Yourself)

주부 박정미(37·광주시 서구 쟁촌동)씨는 올해 처음으로 김장을 직접 담그 생각이다. 결혼 이후에도 친정 어머니가 조금씩 담아준 김치를 얻어 먹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다. 어머니가 연로해 더 이상 부탁하기도 믿고하고, 신종풀루를 막는 데는 김치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단골 식당을 찾아 김치 담그는 법을 꼼꼼히 배우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박씨는 다음달 첫 번째 주말에 남편과 2명의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절임배추를 구입해 집에서 양념을 첨가하는 것으로, ‘생애 첫 김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박씨와 같이 ‘생애 첫 김장’에 도전하는 주부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치에 비해 저렴하고, 가족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양념을 첨가한 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치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주부들 사이에서 김장 담그기 열풍이 불고 있다.

G마켓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김장을 직접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1%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면역력 강화에 특효… 시판보다 값도 저렴**

**절임배추·양념 지난해보다 10% 이상 팔려**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김장관련 매출도 늘고 있다. 24일 현재까지 절임배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 새우젓이나 생강, 당근, 무 등 김장재료 매출도 서서

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김장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각 대형마트와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절임배추나 무, 새우젓 등 김장 재료들의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철인 다음달부터는 이를 김장재료 구매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절임배추를 10kg 이상 주문하면 집 까지 배달해 주고 있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보다 절임배추 매출이 11% 이상 상승됐으며, 지난 16일부터 절임배추 예약판매에 나서고 있는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 대비 13% 가량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손쉽게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김장용 재료를 뿐만 아니라 ‘D.I.Y.(Do It Yourself)’ 상품들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마트는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을 아예 묶어 판매하는 ‘아빠와 담그는 맛있는 김치’ 상품을 올해 처음 출시하는 등 다양한 과생상 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협동농의 이백규(46) 과장은 “광주·전남지역 김장철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산지 물량이 늘어나 배주와 두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하락, 주부들이 저렴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을 것”이라며 “배추 3포기에 2천~3천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4인 가족 기준 1만5천원 정도면 가장 기본재료인 배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아자동차의 아심작 ‘K7’이 개발한 지 5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차 도우미들이 2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K7’을 소개하고 있다.

(기아차제공)

## 기아 준대형 세단 ‘K7’ 나왔다

**가격 2,870만원~4,130만원… 8천여대 주문 예약**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K7’이 24일 출시돼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

에서 신차발표회를 열어 ‘K7’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기아차의 준대형 신차는 사상

두번째로, 지난 1992년 포테사 이

후 17년 만이다. 5년 넘는 연구 개

발 기간에 4천500억원을 투입해

완성했다.

지난 2일부터 사전 계약 신청을

받은 K7은 접수 시작 3주만에 계

엔진 등 총 4가지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뛰어난 연비와 타원한 정숙성을 갖췄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웰컴 시스템 (Welcome System)을 적용, 스마트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기만 해도 접혔던 사이드 미러가 펼쳐지고 도어 손잡이 조

명이 점등된다. 가격은 ▲VG 240 모델이 2천840만원~3천70만원 ▲VG 270 모델이 3천60만원~3천80만원 ▲VG 350 모델이 3천870만원~4천130만원이다.

/김지연기자 dok2000@kwangju.co.kr

## 김장철 정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광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시와 각 자치구,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소비자 단체, 경찰 등이 참여한 5개 반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젓갈류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연합뉴스

## 기아차 노조 기업지부 형태 유지

### 지역 지부 전환 2년 유예

곳은 기업노조로 남아있는 상태다.

기아차지부가 지역지부로 소속이 바뀌면 광주공장, 소하공장을 비롯, 전국의 판매, 정비노조가 해당지역의 금속노조 지역지부 산하로 편재된다. 노조 이름도 기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아차 광주지회 등으로 변경된다.

/김자경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06.42 (-12.63)
코스닥지수
475.39 (-4.41)
금리 (국고채 3년)
4.28% (-0.02)
원·달러 환율
1,156.80원 (+1.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8개월만에 꺾인 소비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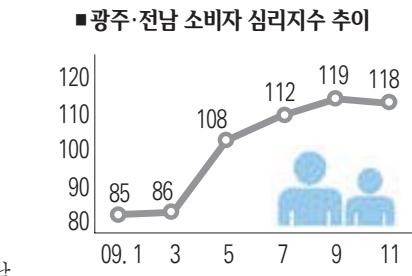
광주·전남 11월중 118… 전달보다 2P 하락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8개월만에 꺾였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363가구를 대상으로 11월 소비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18로 전달(120)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또 앞으로 6개월의 기계수입을 예상하는 가계수입전망 CSI(109→108)는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6개월 후의 가계지출을 예상하는 소비자지출전망 CSI(111→113)는 2포인트 상승해 7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6개월 전과 비교한 11월의 현재생



그러나 11월 중 현재경기판단 CSI(111→111)와 향후경기전망 CSI(123→116)가 각각 6포인트, 7포인트 하락해 지난 4월 이후 지속된 개선 분위기가 주춤했다.

앞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36%)’,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25%)’, 고용사정(18%), 국내 소비 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문자메시지 하루 500건으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당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하루 1천건에서 500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약관을 변경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연합뉴스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론 기준을 정했다.

먼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려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 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